고용개발 2019-02



바배품/무료
93330
9 788958 8132981 8
ISBN 978-89-5813-298-1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 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쉬운 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빵빵! 꿈을 실은 Job 버스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 책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빵빵! 꿈을 실은 job 버스’는
기존에 발간된 발달장애인 직업정보 안내서를 토대로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에서 새로이 개발한 직업을 추가하여
총 24개의 발달장애인 직업(직무)을 실었습니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로 작성하였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해도를 평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해도 평가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어렵다는 낱말과 문장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고, 삽화는 실제 일하고 있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책 표지의 ‘쉬운 글’ 심벌마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나 문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심벌마크는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잘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하도록 쉬운 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발달장애인용 책이나 문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용개발 2019-02

쉬운 글

빵빵! 꿈을 실은 Job 버스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꿈을 실은 버스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꿈을 실은 버스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꿈을 실은 버스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할만한

24개의 직업을 찾아갑니다.

자전거 정비사 성용 씨와 음성 전달사 용식 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선혁 씨가

꿈이 가득 담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신나게 달릴수록 이들의 꿈이 커져 갑니다.

여러분도 버스에 오르세요.

꿈을 실은 버스에 타면 신나는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을 실은 버스가 나갑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빵빵!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서보조원 14

놀이공원 캐스트 20

삽화디자이너 26

자전거 정비사 3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데이터 매니저 40

음성 전달사 46

진단검사의학 보조원 52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보조원 60

공공기관 청소원 66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72

휠체어 관리원 78

세차원 84

세탁원 90



이번 정류소는 **꿈을 찾는 역**입니다.

꿈을 찾는 역에서 바리스타 미희 씨,

자동차 부품 조립원 민호 씨,

식물공장에서 도시농부로 일하는 진헌 씨가 탔습니다.

어?! 잠깐만요. 버스 기사님!

저기 티마스터 나경 씨가 뛰어오고 있어요.

나경 씨! 빨리 뛰어요! 그러다 지각하겠어요.

나경 씨가 올라타자 꿈을 실은 버스가 신나게 달립니다.

자, 지금부터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이 다니는

24개 회사를 함께 둘러볼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죠?

두근두근, 다들 준비됐나요?

꿈을 실은 버스가 출발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바리스타 98

제과제빵 보조원 104

호텔 세탁보조원 110

티(tea)마스터 116

제조업

종이상자 제조원 124

자동차 부품 조립원 130

도매 및 소매업

의류매장 정리원 138

온라인 패커 144

편의점 스태프 150

농업

도시농부 158

화초재배원 164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서보조원

+



놀이공원 캐스트



삽화디자이너

+



자전거 정비사

꿈을 실은 버스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도서관, 놀이공원처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보조원,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놀이공원 캐스트,
삽화디자이너와 자전거 정비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재진이는 도서관의 사서보조원입니다



도서관은 여러 가지 책, 문서, 출판물 같은 자료를 모아 놓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네요!

덕분에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은 누가 정리하는 것일까요?

도서관에서 사서보조원으로 일하는 재진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에 라벨(이름표)을 붙이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역사, 문학, 지리 등 수많은 책에 이름을 달아주고,

정해진 장소에 책을 꽂아두는 일입니다.

재진이는 늘 조용하게 일합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쉿! 도서관에서는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재진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를 도와 자료실의 책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재진이가 책 겉면에 라벨(이름표)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라벨은 하나씩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재진이가 라벨 스티커를 하나씩 떼어낸 후,
얼룩이 남지 않게 조심스레 책 표지에 붙입니다.





라벨을 붙인 책을 책수레에 싣고,
책장이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책수레는 많은 책을 한꺼번에 옮길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재진이 뒤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진이가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책장에는
재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관한 책이 가득합니다.
책 분류 번호에 맞추어 한 권 한 권 제자리에 책을 꽂는
재진이의 얼굴에 뿌듯함이 보입니다.
책을 정리하던 중, 찢어진 책 한 권을 찾았습니다.
재진이는 사서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찢어진 책을
책수레에 따로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이고, 책을 정리하고,
더러워진 책을 찾아 다시 관리하는 재진이!
우리가 그동안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진이처럼 고마운 사서보조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알아두세요

사서보조원 이래서 좋아요
도서관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곳이기 때문에 늘 조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도서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해 더욱 좋습니다. 사서보조원에게는 일을 지도해주는 사서가 있어 마음이 더 편합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책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말수가 적다면 더 좋습니다. 책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글자, 숫자, 알파벳을 알아야 합니다. 높낮이가 다른 책장에 책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팔을 뻗거나 몸을 구부리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한나는 놀이공원의 캐스트입니다

놀이공원은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겁게
노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신나는 놀이공원입니다.

어? 저기, 놀이기구 앞에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손을 흔들며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네요.

이렇게 신나는 곳에서 일을 한다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곳 직원들을 모두 '캐스트(cast)'라고 부르는데,

캐스트(cast)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놀이공원의 주인공이라니 참 멋지죠?

그중 한나는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손님들이 깨끗한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캐스트입니다.

한나는 놀이공원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캐스트입니다.

캐스트란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을 한 한나가 동료 캐스트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유니폼(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놀이공원에 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나는 유니폼을 입은 후, 단정한 복장을 확인하고

거울을 보고 웃으며, 오늘도 파이팅! 하고 외쳐봅니다.





장갑



손걸레



고객서비스센터는

어린 아이와 함께 온 손님들이

유모차를 빌리러 오는 곳입니다.

한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유모차를

손님이 있는 안내데스크로 옮깁니다.

손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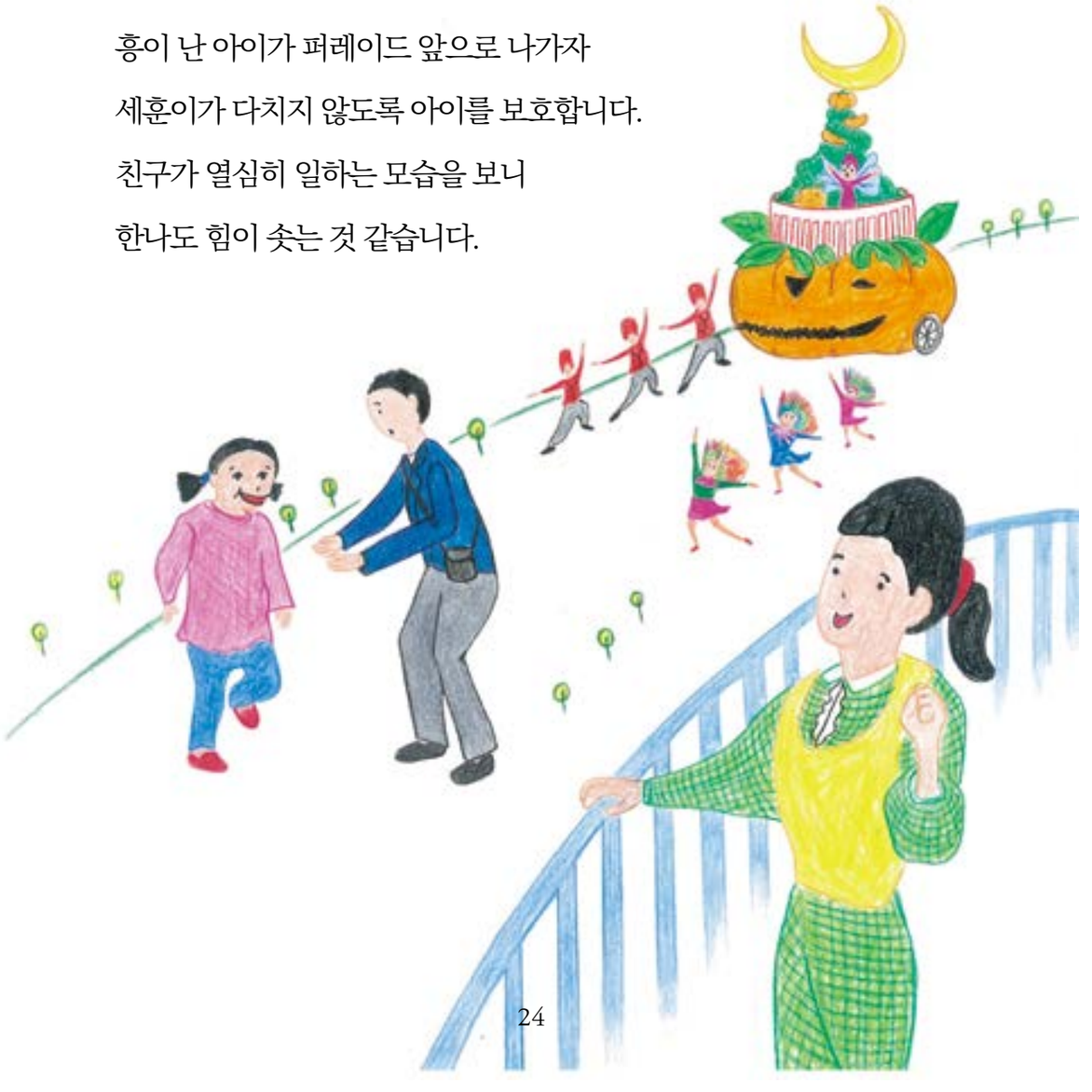
유모차를 옮기는 한나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휴, 다행이다. 아이가 울지 않고 잘 있네."

유모차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한나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한나는 창고로 되돌아가는 길에 동료 캐스트인 세훈이가
퍼레이드에서 열심히 노래에 맞춰 율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조심하세요!"
흥이 난 아이가 퍼레이드 앞으로 나가자
세훈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합니다.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한나도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놀이공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한나가 오늘 반납된 유모차가 총 몇 개인지
빠짐없이 개수를 세서 적어놓습니다.
"서른한 개, 서른두 개… 개수가 딱 맞네!"
손님들이 빌려갔던 유모차가 빠짐없이 창고로 모였습니다.
"혹시 더럽혀진 곳은 없나?"
더러워진 시트는 청결한 시트로 바꿔줍니다.
한나 덕분에 내일도 놀이공원에 놀러오는
아이들이 깨끗한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알아두세요

놀이공원 캐스트 이래서 좋아요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놀이기구가 있는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는 기념품 진열과 판매 보조, 놀이기구 이용 안내, 안전선 지킴이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물건을 깨끗하게 닦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개수 세기와 유모차를 들고 옮길 수 있는 튼튼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손님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혜진이는
삽화디자이너입니다



삽화디자이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삽화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은
동화나 책 속에 사용되거나,
문구류나 티셔츠 등 제품에도
사용됩니다.

혜진이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팬시점에 들렀습니다.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우와,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사람들이 에코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말 특이하면서도 귀여운 그림이야. 누가 이렇게 잘 그렸을까?”

혜진이의 입꼬리가 왠지 모르게 올라갑니다.

손님이 칭찬하는 에코백 속 그림은

혜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혜진이는 삽화디자이너입니다.

삽화디자이너는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삽화디자이너가 그린 그림은 동화책 속에 사용되거나

문구제품, 티셔츠, 머그컵 등의 다양한 제품에도 사용됩니다.

혜진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혜진이 별명은 '인간복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바로 쓱쓱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실물보다 더 멋지게 그려서

사람들은 늘 혜진이의 그림을 보고 놀라곤 한답니다.

혜진이와 함께 일하는 친구 영훈이도 삽화디자이너입니다.

영훈이는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영훈이가 그리는 멋진 세계는 늘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혜진이와 영훈이!

그런데, 이 그림들은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혜진이가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한 혜진이는 무엇을 그릴지 생각합니다.

혜진이가 잘 그리는 그림은 꽃그림입니다.

도화지에 해바라기를 그려봅니다.

노랑색, 초록색, 주황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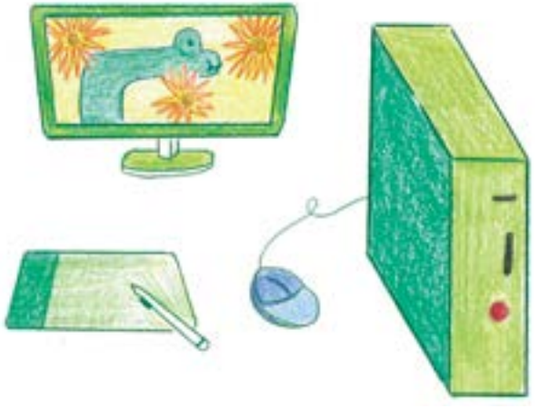
가지각색 사인펜으로 쓱쓱~ 멋지게 그려냅니다.

영훈이는 무지개가 보이는 넓은 초원에서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제부터 도화지에 그린 그림을 컴퓨터로 옮깁니다.
컴퓨터 화면은 도화지가 되고, 마우스는 지우개로 변신합니다.
컴퓨터 펜은 붓처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바라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 참 편리하네요.
어머나! 영훈이가 그린 동물들이 사는 세계에
혜진이가 그린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제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혜진이와 영훈이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서
멋진 머그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이 사는 세계에 피어있는 해바라기 꽃 머그컵이
팬시점, 온라인 매장에 가득 진열되어 있네요.
"여기요~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는 머그컵 계산해 주세요."
오늘도 혜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 머그컵이 인기입니다.



알아두세요

삽화디자이너는 이래서 좋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어,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성용이는
고장 난 자전거를 고치는
자전거 정비사입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하천 주변을 쌩쌩 달리던 성용이가 멈춰 섭니다.

앞서 가던 친구의 자전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아.”

성용이는 자전거 정비사입니다.

자전거가 조금만 이상해도

고장 난 곳을 금방 찾아내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친구의 자전거 바퀴에 작은 구멍이 있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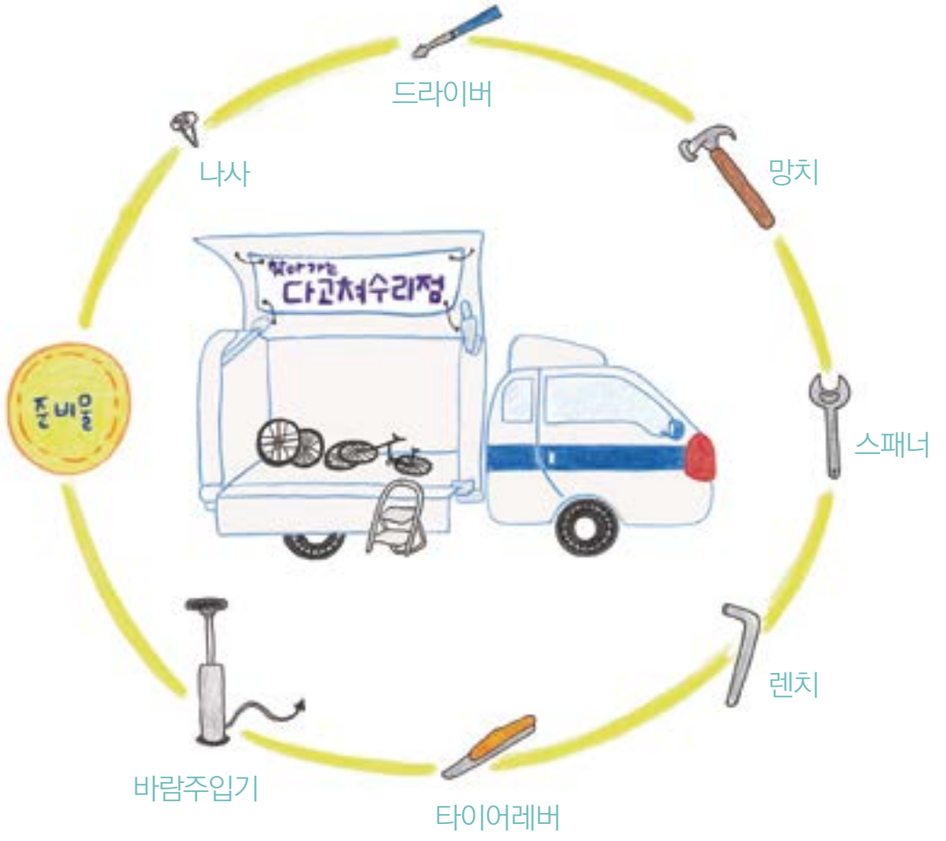
이렇게 계속 타다간 바퀴의 바람이 다 빠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성용이는
고장 난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성용이가 고장 난 자전거를 끌고 수리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품과 도구를 준비합니다.
자전거 수리 도중 필요한 물품을 찾으러 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수리할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고객이 자전거를 끌고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성용이는 접수표에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요청내역을 적은 후
자전거 상태를 점검합니다.
친구의 자전거처럼 고객의 자전거 바퀴에도 구멍이 나있습니다.
“새 바퀴로 교체해야겠어요.”

휠 : 자전거 바퀴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로, 자전거 바퀴가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성용이가 스패너를 이용해

자전거 본체에서 바퀴를 떼어낸 후 휠에서 튜브도 떼어냅니다.

자전거를 뒤집어 안장이 바닥으로 가게 하면 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바퀴를 떼어버리면서 생긴 부품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새 튜브를 휠과 바퀴 사이에 집어넣고

바람 주입구에 바람을 넣은 후

자전거 본체에 바퀴를 끼우면 끝!

사용한 부품과 도구는 제자리에 다시 가져놔야

다음 작업에 문제가 없겠죠?



알아두세요

자전거 정비사 이래서 좋아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큰 직업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기술을 습득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있기 보다는 활동적으로 몸을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자전거 수리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이며, 부품과 도구를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의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데이터 매니저

+



음성 전달사

+



진단검사의학 보조원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직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은 일상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데이터 매니저, 음성 전달사, 진단검사의학 보조원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병우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드는
데이터 매니저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차를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하겠지요?

병우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 나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만,

공부가 덜 된 자동차는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자동차가

도로 위 사물과의 상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럼 병우가 어떻게 자동차를 돕는지 알아볼까요?

병우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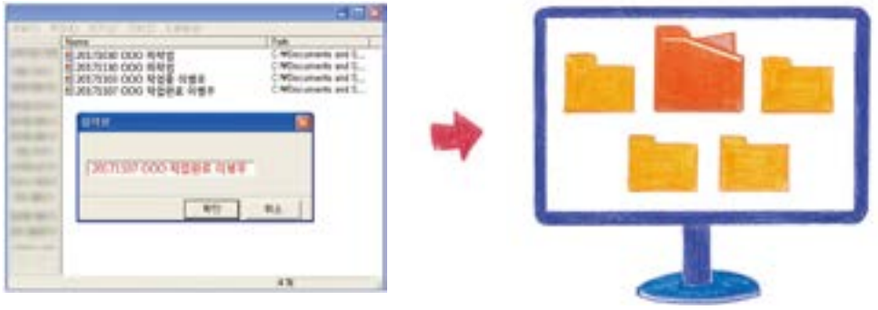


컴퓨터가 공부를 하려면 아주 다양한 모양의
나무, 사람, 자동차가 있는 도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불러옵니다.

우선 자동차부터 찾아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싸고,
프로그램 상단에 있는 '자동차'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무처럼 구불구불한 모양은 다각형으로 둘러싸고,
'나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와 나무들 외에도
사람과 도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반복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작업하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하지만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꼼꼼히, 차근차근 일을 해야겠지요.

병우가 어느새 작업을 마쳤습니다.
작업이 끝난 파일들은 팀장님이 알려준 대로
각 파일마다 이름을 적고, 약속한 폴더에 넣어둡니다.
파일이름과 저장 폴더가 정확해야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한 파일에 이름 달기!　　약속된 장소에 저장하기!



사진 이름을
'사람'으로 고치기

겹쳐있을 땐,
따로 따로 저장하기

어? 그런데 저번에 작업한 사진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자동차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진들이 있네요?

병우가 문제가 있는 사진들을 다시 열어 봅니다.

병우가 작업한 사진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작업한 것도 있습니다.

"아, 이건 '사람'으로 사진이름을 저장해야 하는데,

'자동차'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건, 네모 모양을 잘못 그렸고, 이건 자동차랑 사람이 붙어 있어!"

병우가 잘못된 것들을 모두 수정하고

잘 모르는 것은 팀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와우!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병우는 이제 퇴근준비를 합니다.

'오늘 한 일'과 '내일 할 일'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팀장님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드는 데이터가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고,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알아두세요

데이터 매니저 이래서 좋아요

미래에 유망한 직업으로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이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도 일할 수 있고 다칠 위험이 적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컴퓨터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다른 점을 찾거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알파벳을 알아야하며 동료와 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식이는
말을 글로 바꾸는
음성 전달사입니다



토요일 오전, 용식이가 가족과 함께
어린이대공원으로 주말여행을 나섰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빠를까'를 고민하던 용식이가
휴대전화에 가는 법을 물어보네요.
"현재 위치에서 어린이대공원 가는 방법 알려줘."

용식이의 목소리를 인식한 휴대전화가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을 보여줍니다.
이동시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휴대전화는 어떻게 용식이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길을 안내해 준 것일까요?



휴대전화, 내비게이션(길안내 장치) 같은 기계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나 문장을 컴퓨터 시스템에 옮기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음성 전달사'라고 부릅니다.



용식이는
휴대전화 같은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용식이도 음성 전달사입니다.

음성 전달사는 어떻게 컴퓨터에 사람의 목소리를 입력하는 걸까요?

컴퓨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자판으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용식이가 옮겨 적은 단어를 휴대전화로 전달합니다.





다음날 아침, 용식이가 옮겨 적은 단어가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자동차 내비게이션(길안내 장치) 같이

말소리를 통해 움직이는 기기에도 등록됐습니다.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소리'가 '글'이 되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

용식이 같은 음성 전달사 덕분이었네요.

편리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용식이를 기억해주세요!



알아두세요

음성 전달사 이래서 좋아요

성별과 나이 제한이 없고,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소리를 글로 바꾸는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음성정보전사직'으로 불리기도 하는 '음성 전달사'는 말소리를 듣고 문자로 옮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야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고, 반복적인 일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꼼꼼하고 끈기 있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영우는 진단검사의학 보조원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은
사람들의 피를
전문적으로 검사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으면 병원을 찾습니다.

먼저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을 측정한 뒤

간호사가 주사기로 피를 뽑습니다.

"앗 따가워!"

걱정 마세요. 따끔하기만 할 뿐 아프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피로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걸까요?

병원은 검진 받은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곳에는 환자의 피를 검사해 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돕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기 영우도 보이네요.

영우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을 돕는 진단검사의학 보조원입니다.

이곳에서 영우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영우는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팁을 정리하는
진단검사의학 보조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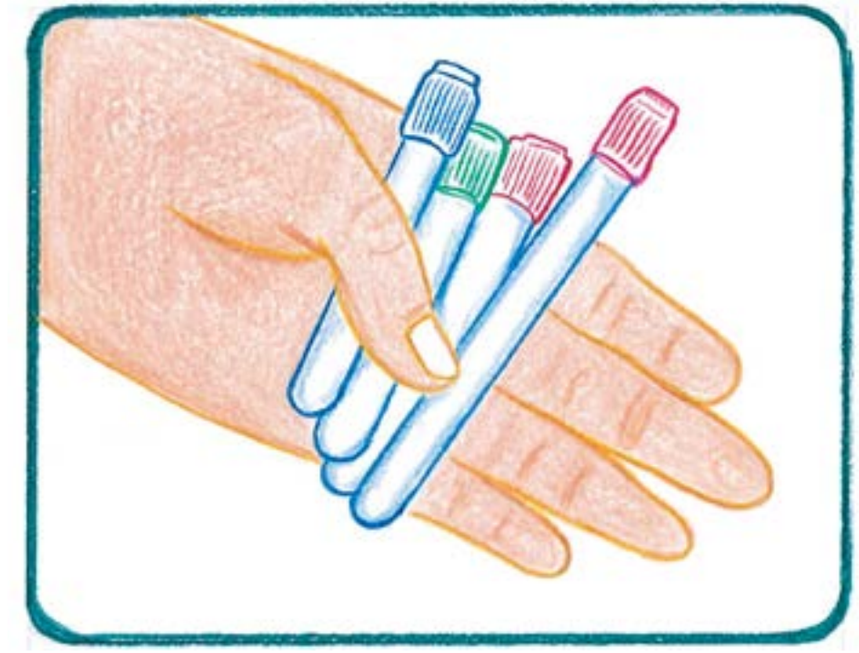


영우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흰색 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소독된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도 씁니다.
병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곳이므로 바깥의 나쁜 병을
묻히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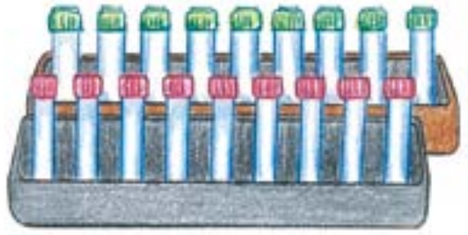


깨끗한 복장으로 갖춰 입은 영우가
보관함에서 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팁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피를 담는 작은 병입니다.
팁을 기계에 넣고 작동시키면,
병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팁은 검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물건이겠죠?



팁은 모양과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우가 책상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팁을 정리대에 꽂기 시작합니다.
정리대 구멍크기에 맞는 팁을 골라서 정확하게 꽂아야 합니다.
뚜껑이 있는 팁은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습니다.
영우가 팁이 다 꽂힌 정리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 놓습니다.
"휴... 다 끝났다."
팁이 꽂힌 정리대를 보관함에 옮기고 책상 위를 청소합니다.

일을 끝낸 영우가 입었던 가운을 벗은 후 잘 개어
옷장에 넣습니다. 사용한 장갑은 위생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영우가 정리한 팁을 검사실로 가져가네요!
"영우 씨! 팁을 잘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영우는 자신이 정리한 팁이 진단 검사에 보탬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뿌듯하답니다.



알아두세요

진단검사의학 보조원 이래서 좋아요
대형병원이나 진단검사 전문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소독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균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검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람된 일이랍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차분히 앉아서 손으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깔끔한 성격이면 좋습니다. 실내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므로 금방 지루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해도 끈기 있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무보조원

+


공공기관 청소원

+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휠체어 관리원

+


세차원

+


세탁원

사무보조원, 공공기관 청소원, 신재생에너지 지킴이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 해주거나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휠체어 관리원, 세차원, 세탁원 역시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직업입니다.

유정이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무보조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선생님, 행정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유정이를 만나는 날입니다.

학교에 오니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친구 유정이는

왜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까요?

유정이는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을 돕는 사무보조원입니다.

복사, 팩스 보내기, 우편물 정리, 교무실 청소를 합니다.

유정이 말고도 학교에는 급식실 보조원,

도서실 사서보조원, 통학버스 보조원처럼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유정이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복사, 서류 정리,
우편물 정리, 우편물 보내기 등의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교무실에 들어온 유정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배달된 신문을 신문대에 끼우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 저기 흩어진 책을 제자리에 두고,

창가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줍니다.

교무실이 깨끗해지니 유정이도, 선생님들도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유정 씨, 좀 도와줄래요."

정리를 마치자 선생님이 서류를 복사해

30개의 묶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유정이는 복사기 앞으로 가서 선생님이 부탁한대로

'30'을 입력한 후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되어 나온 서류들을 잘 확인한 후,

스테이플러로 눌러 묶음을 만듭니다.

1, 2, 3, …. 30 묶음을 만들 때까지 차근차근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팩스 보내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유정 씨, 팩스 좀 보내줘요."

"네. 그럴게요!"

서류와 팩스번호를 받은 유정이가 팩스기 앞으로 갑니다.

팩스기에 서류를 넣고, 번호를 천천히 누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니, 얼마 후 팩스가 잘 보내졌다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팩스를 보낸 후, 유정이는 선생님에게 다시 문서를 가져다 줍니다.

"팩스가 잘 들어간 걸 확인했나요?"

"그럼요. 팩스가 잘 갔다는 신호음도 들었는 걸요."

선생님과 유정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습니다.



알아두세요

학교 사무보조원 이래서 좋아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 있고, 다칠 위험이 없는 편입니다. 학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출퇴근이 쉽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상냥한 성격의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장소를 잘 찾는 편이라면 일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잘 찾아야 하니까요.

주혁이는 구청에서 일하는 청소원입니다



구청은 구(區)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거나 여권을 만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구청에 가야합니다.

요즘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만든 구청도 많아졌죠?

덕분에 운동을 하기 위해 구청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구청은 어떻게 늘 깨끗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을 때만 나타나서 청소를 말끔히 해주는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요?

구청이 언제나 깨끗한 이유는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원 덕분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늘 반짝반짝 윤이 나게 청소를 하고 있지요.

주혁이 역시 구청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복도 청소를 담당합니다.





주혁이는
집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은 청소하기 편한
옷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치마를 두릅니다.
먼지가 많이 날 테니까 마스크도 착용합니다.
손걸레와 빗자루, 대걸레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앞치마



마스크



손걸레



쓰레받기



빗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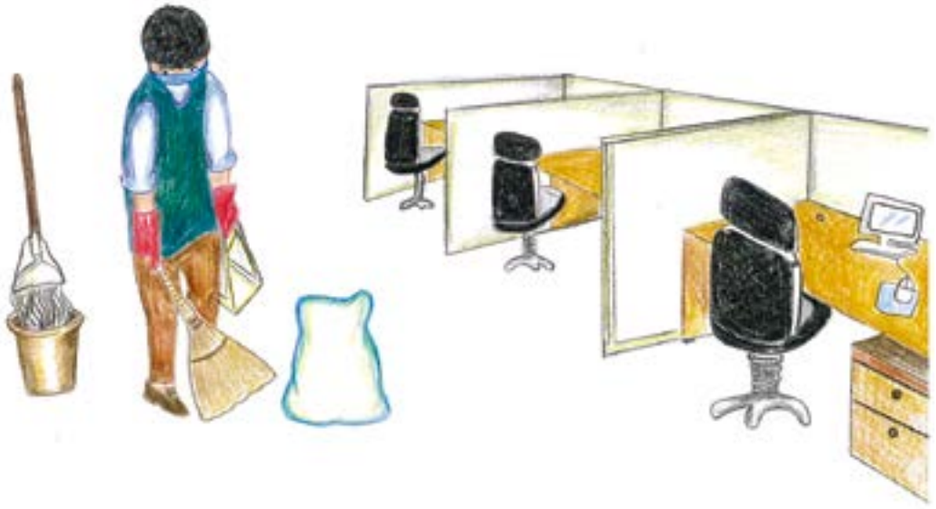
고무장갑



대걸레와
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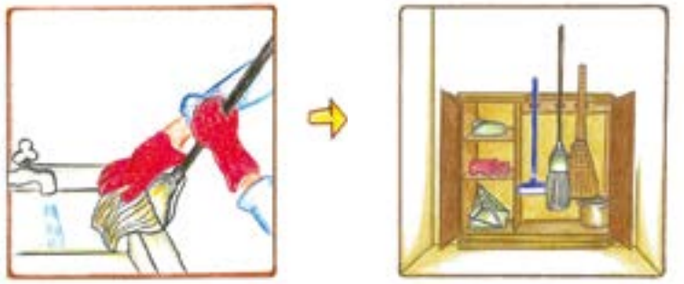


청소를 할 때는 안쪽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사무실 안을 청소한 후 사무실 바깥을 청소해야 하죠.
주혁이가 사무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깨끗이 빤 손걸레로 구석구석 먼지를 닦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회의용 탁자는 물론
파티션도 꼼꼼히 닦습니다.



이번에는 의자를 한 쪽으로 치운 다음
빗자루로 책상 밑과 바닥을 쓸어냅니다.
모아진 쓰레기는 쓰레받기에 담아서 쓰레기봉투에 쏙!
빗자루로 쓸어낸 바닥을 대걸레로 닦습니다.
대걸레를 사용할 때는 바닥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꽉 짠 후
양손에 힘을 주어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자루로 깨끗이 쓸고 쓰레기는 봉투에 모으고
대걸레로 닦고 의자는 제자리로!
구청이 왜 깨끗한지 모두 알겠죠?

청소를 마친 후에는 정리정돈을 합니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쓰레기봉투는 수거함에 둡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구청이지만 주혁이 같은 청소원 덕분에
구청은 늘 깨끗합니다.
주혁이가 깨끗해진 구청을 나서며 활짝 웃습니다.



걸레 빨기 청소도구 정리

알아두세요

공공기관 청소원 이래서 좋아요
교대 근무가 없고 주로 실내를 청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청소원에 비해 업무가 힘들지 않은 편입니다. 집에서 청소하는 방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큽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평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 계속 몸을 움직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손이 조금 느리고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청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혁이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하는
신재생에너지 지킴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열을 에너지로
만드는 곳입니다.



선혁이가 사는 동네에 최근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혁이는 신재생에너지 지킴이로 일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있는 시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요.

특히 태양에너지를 모으는 집열판은

모두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거나 새의 분비물이 묻으면 바로 닦아내야 합니다.

집열판 : 투명한 유리판을 이용하여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모으는 장치





태풍이나 폭우가 몰아친 후에는

집열판이 깨지거나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관리자에게 망가진 집열판의 위치를 알려주어

교체하도록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실제로는 태양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는 불량 집열판도 있습니다.

불량 집열판은 눈으로만 확인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땐 회사에서 제공한 열화상 기기를 활용합니다.

열화상 기기 :
집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계





집열판을 꼼꼼히 체크하던 선혁이가

무성하게 자란 풀을 발견했습니다.

“풀이 집열판을 덮어 버리면 태양에너지가 모이지 않는데….”

선혁이가 동료와 함께 풀을 뽑기 시작하네요!

사무실로 돌아온 선혁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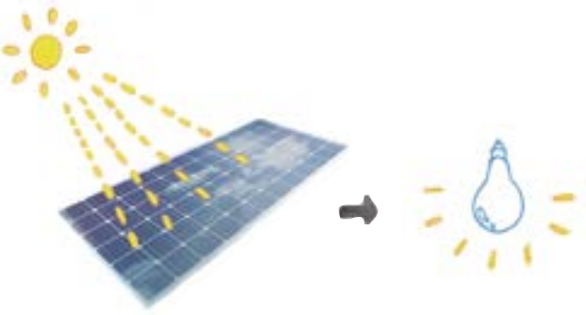
발전소에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로 체크합니다.

집열판이 하루 동안 모은 전력량이

어제와 비슷한 걸 보니 정상 작동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전력량을 기록한 후 퇴근하는

선혁이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입니다.



전력량 :
전등을 켤 때 또는
휴대전화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할 때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량은 이러한
전기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알아두세요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이래서 좋아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가 많아짐에 따라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막는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태양광 발전소는 관리해야 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집열판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의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광수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휠체어 관리원입니다



병원은 다치거나
아플 때,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병원은 많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픈 환자들을 돌봐주는 곳이지요.

광수도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처럼 환자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광수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광수는 휠체어를 수리하거나 정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있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과

다리가 아픈 환자들이 휠체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럼, 광수가 어떻게 휠체어를 관리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광수는 병원에서 휠체어를
수리하거나 정리하는
관리원입니다.



광수가 휠체어를 점검하기 위해 소아병동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작업 방수 앞치마, 팔토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분해해야 하므로
드라이버, 스패너, 스팀청소기, 손걸레, 붓도 준비합니다.
광수가 시트와 등받이, 뒷바퀴, 앞바퀴, 발걸이 등
순서대로 휠체어를 분해합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나쁜 균이 없도록 소독도 합니다.
휠체어를 왜 소독하느냐고요?
손을 비누로 자주 깨끗이 씻어야
감기나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휠체어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만큼
자주 소독을 해줘야 위생상 안전하겠죠?



광수가 소독을 하던 중 바람이 빠진
휠체어 바퀴를 발견했습니다.
어? 발판이 고장 난 휠체어도 있네요!
"고장난 휠체어를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야."
광수가 고장난 휠체어를 수리하고,
파손된 부품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거나 발판이 고장난 휠체어도
수리해주어야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수가 휠체어 소독과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때,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병원을 찾은 한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다리도 많이 불편해보입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직원이 깨끗하게 관리된 휠체어를
얼른 가지고 가 할아버지를 태웁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걱정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직원이 광수 씨를 보고 고맙다며 찡긋 윙크합니다.
광수 씨 덕분에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 모두 행복해하네요.
"고맙습니다. 광수 씨~"



알아두세요

휠체어 관리원 이래서 좋아요
주로 실내에서 천천히 작업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람된 일입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평소에 주변 물건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간단한 공구를 다루면서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진수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세차원입니다

자동세차기가 있는 주유소에 가면
편하게 세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는 날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 주유와 세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세차를 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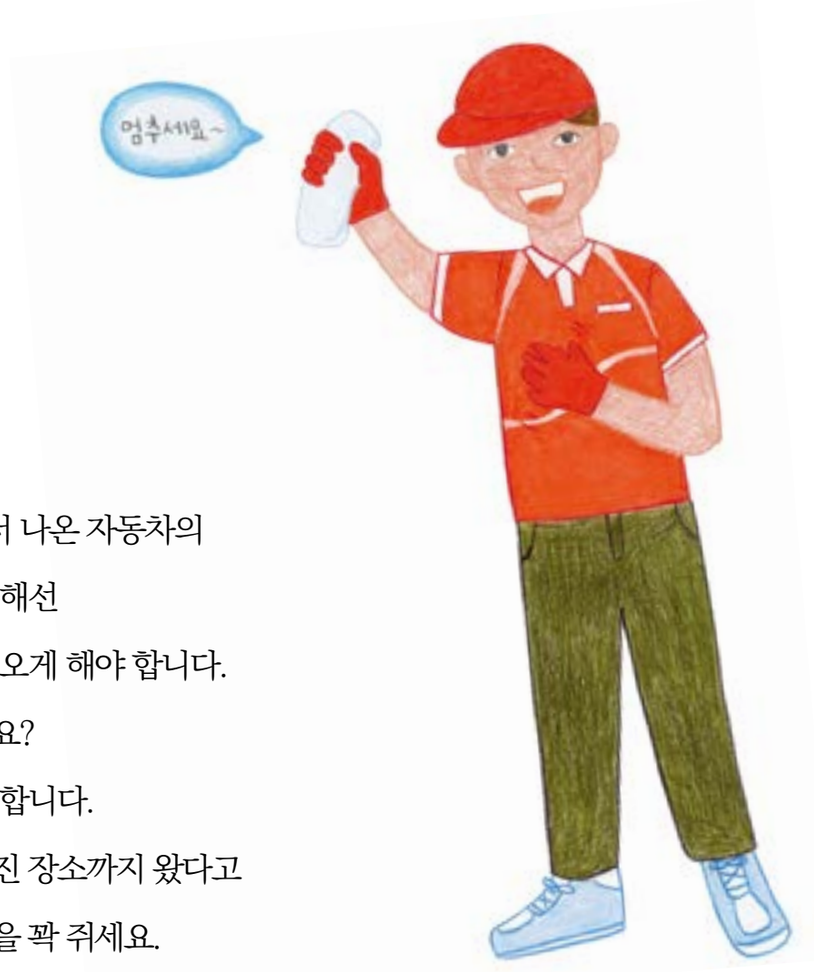
진수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세차원입니다.
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차기에서
물 세차를 마친 자동차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수는 자동차에 남아 있는 물기를 닦아 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세차원은 유니폼(작업복), 모자와 신발,
방수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신발은 되도록 운동화를 신습니다.
겨울에는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방한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장갑은 자주 바꿔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세차기에서 나온 자동차의
물기를 닦기 위해선
정해진 곳까지 오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손으로 신호를 합니다.
자동차가 정해진 장소까지 왔다고
생각되면 주먹을 꽉 쥐세요.
그러면 운전자가 신호를 알아보고
차를 세울 테니까요.
자동차의 물기를 닦기 전,
진수가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합니다.



진수는 자동차 유리, 몸체, 사이드 미러를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차의 물기를 닦을 때는 걸레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차를 마치면,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한 후 자동차를 보내면 됩니다.

세차하는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세차장 바닥에 고인 물을 없애야 합니다.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세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고인 물이 꽁꽁 얼어붙어
더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밀대로 하수구 쪽으로 물을 밀어내면
미끄러질 위험도 함께 사라집니다.



알아두세요

세차원 이래서 좋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면서 여러 종류의 차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큰 근육을 이용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표정이 밝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키가 크다면 차의 윗부분을 닦을 때 손이 쉽게 닿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키가 작아도 자동차 옆면의 창문과 문을 닦으면 되니, 일하는 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선우는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세탁원입니다

세탁공장은 병원,
목욕탕 등에서 나온
세탁물을 모아서
깨끗하게 세탁하는
곳입니다.



세탁공장은 병원,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등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더러워진 세탁물을 깨끗하게 빨아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선우는 세탁공장에서 세탁원으로 일합니다.
이곳은 더러워진 세탁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작업복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공장 안을 편하게 걸어 다니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어야합니다.

선우는 세탁공장에서
작업복, 이불, 수건 등을
세탁하는 일을 합니다.



선우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자,

세탁공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사용한 환자복과 수술복 등을 가득 실은 트럭입니다.

트럭이 멈추고 문이 열리자

세탁물이 담긴 수레가 보입니다.

수레에는 바퀴가 있어서,

공장 안까지 쉽게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밀어요.” 선우가 조심조심 수레를 끕니다.





수레에 담긴 세탁물은 색깔과 종류에 따라 나눕니다.

“여기에는 흰색 환자복, 저기에는 초록색 가운을 넣어주세요.”

환자복인지 수술복인지, 흰색인지 초록색인지

잘 구분해 나누어 담습니다.



분류가 끝난 세탁물을 수레에 담아 세탁기계 앞으로 옮깁니다.
세탁물을 세탁기계에 넣던 선우가 종종 바닥을 살펴봅니다.
"혹시 떨어진 건 없겠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기계에 세탁물을 넣은 후
선우가 기계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누릅니다.
윙윙! 세탁물을 가득 담은 세탁기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반짝반짝! 세탁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세탁물은 종류에 따라 정해진 방법대로 잘 개어줍니다.
윗옷은 윗옷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정해진 숫자만큼 세어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대중목욕탕에서
깨끗한 세탁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선우와 세탁공장 동료들 덕분이었네요.



알아두세요

세탁원 이래서 좋아요
세탁공장은 큰 세탁기계와 건조기계를 사용해 세탁을 합니다. 세탁원이 하는 일은 세탁물 구분이나 개기처럼 대체로 쉬운 일입니다. 세탁공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기업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세탁원은 구분과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동료들과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어울립니다. 세탁물을 만질 때 장갑과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답답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많은 세탁물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몸이 튼튼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바리스타

+



제과제빵 보조원



호텔 세탁보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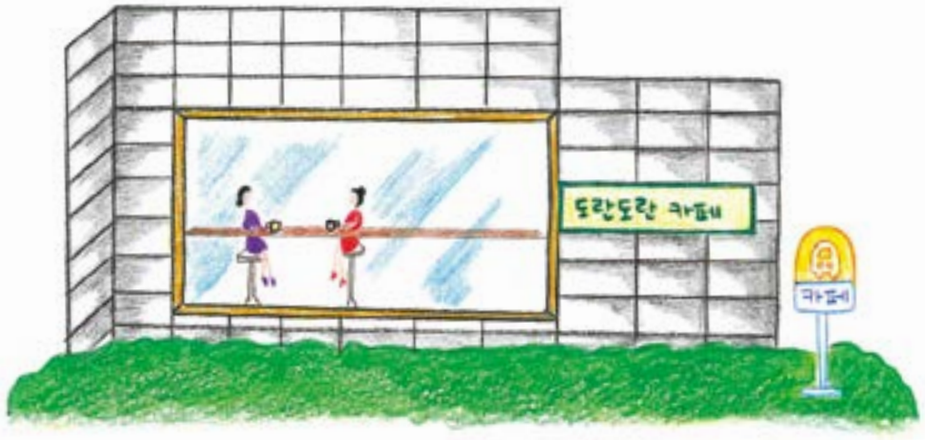


티(tea)마스터

우리가 이용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주방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의류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람도 있죠.
모두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돕는 직업입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보조원, 호텔 세탁보조원, 티마스터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미희는 카페에서 커피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카페는 커피나 음료를
사서 마시는 곳입니다.



상쾌한 아침, 미희는 요즘 매일같이 카페로 향합니다.

모닝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시러' 가 아니라 '만들러' 갑니다.

미희는 커피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이기 때문입니다.



미희는 카페에서 커피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는 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 커피전문점에서 일을 합니다.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 기계를 이용해

손님이 원하는 커피음료를 만듭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에스프레소에 물, 우유, 시럽을 넣어서

다양한 커피음료를 만드는 전문직이랍니다!

위잉~

미희가 오늘의 첫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원두 가는 기계에 원두를 채워 넣습니다.

벌써 손님이 왔냐고요?

아뇨.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큰일이니까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원두 가는 기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좋아요! 이만하면 오늘의 장사도 문제없겠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미희가 일하고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따뜻한 것을 원하는지 차가운 것을 원하는지

가져갈 것인지 매장에서 마실 것인지를 확인하네요.

“마시고 가려고요. 시럽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손님이 매장에서 마시겠다고 하자 미희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일회용 컵에 드릴까요, 머그컵에 드릴까요?”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미희는 꼼꼼하기까지 합니다.



우웅~~ 손님이 받아간 진동알람이 울립니다.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미희에게 가자 머그잔에 담긴 아메리카노가

쟁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미소가 멋진 미희는 정말 친절합니다.

바리스타 미희는 커피음료 만드는 일을 마친 후에

주변 정리를 시작합니다.

원두 가는 기계와 에스프레소를 만든 기계를 청소합니다.

사용한 행주를 빨고, 스푼과 잔을 깨끗하게 설거지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매장의 테이블도 정리합니다.

요리사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야

다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바리스타도 커피를 만든 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멋진 바리스타이니까요!



알아두세요

바리스타 이래서 좋아요

인테리어가 멋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커피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과자 향기가 있는 실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랍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기 때문에 체력이 강하면 좋습니다. 원두를 가는 기계나 스팀기를 다룰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레시피에 따라 음료를 만드는 순서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유미는 제과제빵 보조원입니다

빵집은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친구의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빵집에 들렀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유미가 빵집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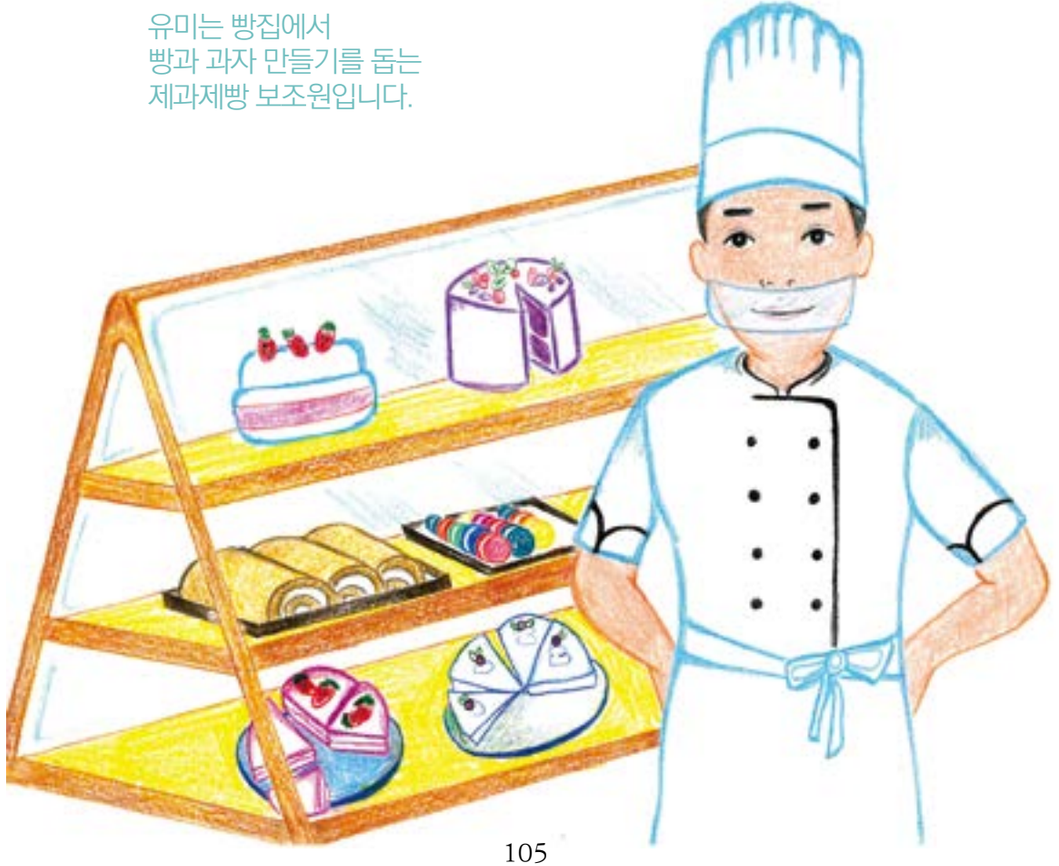
유미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빵이 너무 좋아서 제과제빵 보조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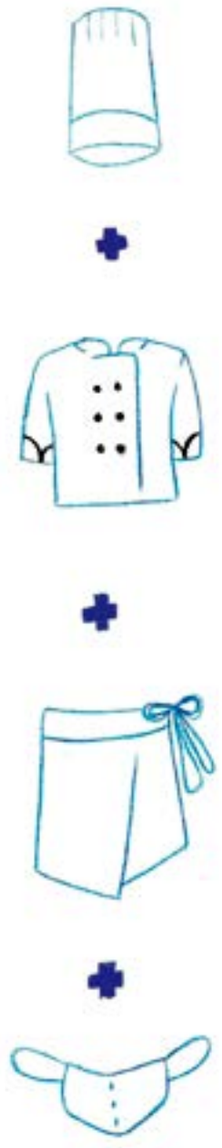
직접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유미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유미는 빵집에서
빵과 과자 만들기를 돕는
제과제빵 보조원입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얀 위생복과 앞치마,
위생모와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위생모를 쓸 땐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맛있는 소보로 빵에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위생복으로 갈아입었다면
이제 소보로 빵 만들기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유미가 버터와 설탕, 소금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떼어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소보로 빵을 만들려면 50g씩 반죽을 나누어야 합니다.
저울의 눈금이 딱 50g을 가리키네요!



유미는 빵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도마에 대고 굴리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후 반죽 윗면에 물을 묻히고 소보로 가루를 묻히면 끝!

소보로 가루를 묻힌 밀가루 반죽을 오븐 판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오븐에 넣을 준비를 합니다.

빵을 굽는 오븐은 정말 뜨겁습니다.

오븐을 만지는 일은 함께 일하는 선배에게 부탁하세요!

자, 이제 10분만 있으면 맛있는 빵이 나올 겁니다.

두근 두근 두근! 오븐 속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유미의 마음도 부풀어 오릅니다.

땡! 벨이 울리고 오븐에서 꺼낸 빵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 끝내줍니다!



알아두세요

제과제빵 보조원 이래서 좋아요

하루 종일 고소한 빵과 과자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좋습니다. 경험을 많이 할수록 만들 수 있는 빵과 과자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도 장점입니다.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멋진 제과제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 만드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입니다.
다만, 전염병이 없고 건강해야 합니다. 위생복과 위생모, 마스크 차림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밀가루와 설탕 봉지 같이 무거운 물건을 잘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오븐기를 다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승호는
호텔에서 일하는
세탁보조원입니다



호텔은 먼 곳에서 여행이나 출장을 온 사람들이
집 대신 지내는 곳입니다.

보고 싶었던 유명 작가의 전시회가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답니다.

일주일 동안만 열리는 것이라 이번 주말을 놓치면 큰일입니다.

서둘러 호텔 입구에 들어서니 안내하는 사람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상냥하게 물어옵니다.

호텔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승호는 호텔에서 일하는
세탁보조원입니다.

호텔 객실 복도에서 승호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작업복)을 입은 승호의 모습이 멋있네요!

승호는 호텔 손님들이 깨끗한 리넨(침대 커버나 수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세탁보조원입니다.

밝은 얼굴로 출근을 한 승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호텔 유니폼(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호텔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항상 깨끗한 인상을 주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해진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 → 일할 때 입는 호텔 유니폼



승호가 일하는 호텔에는 각 층마다
객실에서 사용한 리넨을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승호는 각 층을 오가면서 객실용 리넨을 모아
운반용 카트에 담습니다.
카트에 리넨을 꾹꾹 눌러 담아 가득 채워지면
지하 2층에 있는 세탁물 모으는 곳으로 옮깁니다.



모아진 리넨은 종류대로 나눕니다.

손님이 사용한 것 중 많이 더럽지 않은 것은 카트에,

많이 더러운 것은 비닐봉투에 따로 모읍니다.

낡아서 바꾸거나 수선해야 할 리넨은

또 다른 비닐에 담아 나눕니다.

"어? 세탁공장 트럭 올 시간이 다 되었네!"

승호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집니다.

작업을 마친 리넨은 트럭에 실려 세탁공장으로 갑니다.

며칠 뒤 지저분했던 리넨이 뽀송뽀송하게 변신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승호가 세탁공장에서 돌아온 리넨을 정리하고 있을때

7층 객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층 객실에 침대보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호가 깨끗한 리넨을 카트에 정성껏 담아

7층으로 향합니다.

덕분에 호텔을 찾은 사람들이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알아두세요

호텔 세탁보조원 이래서 좋아요

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호텔 유니폼(작업복)을 입고 일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요. 호텔 안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서 운동도 됩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인사를 잘하고 표정이 밝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깨끗하게 단장하기를 좋아하고, 물건 개수세기와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카트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힘이 센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나경이는
건강한 차를 만드는
티마스터입니다



점심을 먹고 '어떤 후식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향기가 새어나오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섭니다.

차나무 잎을 활용한 다양한 차를 파는 곳이네요.

가게에 들어서자 "안녕하세요"하고 나경이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나경이는 차 가게에서 티마스터로 일합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차를 추천하고,

만드는 일입니다.



나경이는
몸에 좋은 차를 만들고,
손님에게 추천하는
일을 합니다.

"깔끔한 느낌의 차를 원하신다면 녹차가 좋고요,
조금 더 깊은 맛을 원하신다면 홍차 어떠세요?"
차나무 잎을 말리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녹차, 홍차, 우롱차처럼 색깔과 향이 달라진다는 설명에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경이를 바라봅니다.



녹차
차나무 잎을 따서 높은 온도의 불에서 볶은 후 따뜻한 물에 넣어 마셔요.

우롱차
녹차와 달리 차나무 잎을 딴 후 햇볕에서 살짝 말려요. 그 다음 높은 온도에서 볶아 따뜻한 물에 넣어 마셔요.

홍차
우롱차보다 차나무 잎을 오랫동안 말린 것으로, 우롱차보다 향이 강하고 물에 넣었을 때 붉은 빛이 나요.

백차
솜털이 있는 차의 어린 싹을 그대로 건조시킨 것으로 산뜻한 맛이 일품이에요.

흑차
김치를 만들 때처럼 찻잎을 오랫동안 발효해서 만든 것으로, 물에 넣었을 때 갈황색이 나요.



숟가락 계량기

손님이 주문한 홍차를 만들기 위해
계량기를 이용합니다.
맛과 향을 상상하며 다양한 찻잎의 양을 조절하여 담습니다.
어떤 찻잎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 특별한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경이는 직접 찻잎을 넣어 만든 홍차를
찻잔에 담아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손님들이 차를 맛본 후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차 덕분에 입안이 개운해진 손님들이 활짝 웃습니다.
손님들을 바라보는 나경이 얼굴에도
홍차처럼 발그레한 미소가 번지네요.

다양한 차를 맛보고, 손님들에게 추천하며
직접 만든 차를 통해
손님들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나경이!
오늘은 나경이가 추천하는 차 한 잔, 어떨까요?



알아두세요

티마스터 이래서 좋아요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흔한 커피 대신 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내내 차 향기가 물씬 풍기기 때문에 기분도 좋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찻잔을 다룰 일이 많기 때문에 양손 사용이 자유롭고,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차 맛을 알고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맛' 보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제조업



종이상자 제조원

+



자동차 부품 조립원

제품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조립, 포장, 운반 등의 활동을 하는 일인데요,
주로 실내에서 일하고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답니다.
종이상자 제조원과 자동차 부품 조립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게요.

수미는 종이상자 제조원입니다



종이상자 제조회사는 상자를 만들고,
때로는 상자에 물건을 담아 포장해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상자를 열어보니 며칠 전 주문했던 책이 담겨 있습니다.

'상자가 튼튼해서 책이 다치지 않았구나' 생각하던 차에,

문득 친구 수미가 떠오릅니다.

수미는 종이상자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수미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케이크 상자, 예쁜 그릇을 담는 그릇 상자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종이상자를 만듭니다.

수미는 이곳에서 종이상자를 접고 운반하는 제조원입니다.

이곳에는 둘둘 말려 있는 큰 종이들이 참 많네요!

상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종이들이랍니다.



수미는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종이상자를 접고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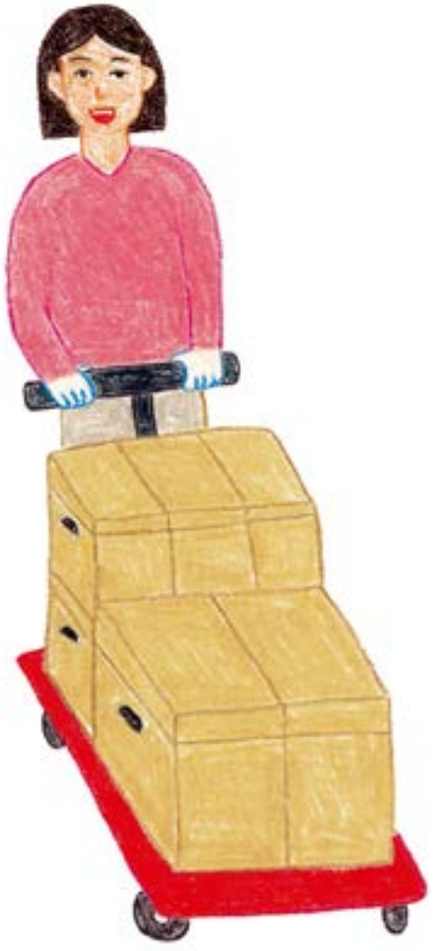
종이상자를 만들려면 우선 큰 종이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겉면에 상표와 사진을 인쇄해야 합니다.
접는 선도 표시하고요!
이런 작업은 한꺼번에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가 해준답니다.







접는 선을 따라 종이를 정성스레 접기 전,
수미가 장갑을 낍니다.
상자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
손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접는 선 표시를 따라 상자를 만들던 수미가
상자 겉과 속에 접착제를 발라 튼튼한 상자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접은 상자를 하나 둘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상자가 작업장에 너무 많이 쌓이면,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 만든 상자를 틈틈이 창고로 옮겨야 합니다.

크기와 종류대로 정리해서 상자를 옮기는 수미는

상자 나르기 선수입니다.

작은 상자는 왼쪽, 큰 상자는 오른쪽.

정리하는 솜씨도 최고입니다.

"내가 만든 상자를 사람들이 사용하다니, 정말 뿌듯해요!"

상자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수미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알아두세요

종이상자 제조원 이래서 좋아요

종이상자 만드는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문하는 회사에 따라 크기와 종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상자 모양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일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실내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손에 힘을 줄 수 있고 손가락의 힘 조절을 잘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 만들어야 할 상자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이 빠르고 성실하면 더욱 좋습니다. 상자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하므로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민호는
자동차 부품 조립원입니다



자동차 부품공장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오늘따라 유난히 길이 막힙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고장난 앞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큰일이네, 이러다간 지각할 텐데!'

지각을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큰 차가 멈출 수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민호는 자동차 부품 조립원입니다.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튼튼한 부품을 만드는 멋진 일을 합니다.

민호는 특히 운전대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척척박사입니다.

민호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들과 아침인사를 나눈 민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부품을 만지다보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과 팔토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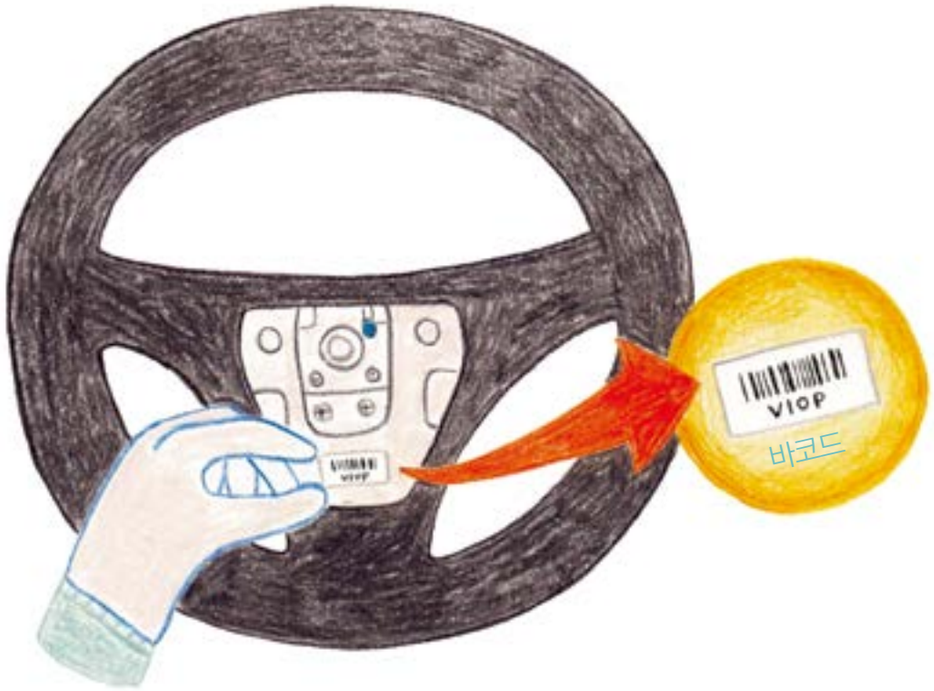
작업 준비를 마친 민호가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튼튼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 파이팅!'

민호는 일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정확하게 조립한 부품에 바코드를 붙이는 것도 민호의 몫입니다.

바코드에 있는 번호는 부품의 이름표가 됩니다.

혹시라도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코드를 보면

어느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해서 조금 피곤하지만

민호는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보며 웃습니다.

저 많은 자동차 중에, 민호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자동차가

있을 테니까요!



알아두세요

자동차 부품 조립원 이래서 좋아요

앉아서 일할 때가 많고, 작은 부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을 정해진 위치에 끼우고 조립하는 일이라 배우기도 쉽습니다. 자동차 모델이 바뀔 때 조립내용이 조금씩 바뀌지만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자동차와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작은 부품의 색깔과 모양 등을 침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동료와 속도를 맞추겠다는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의류매장 정리원

+



온라인 패커

+



편의점 스태프

물건을 정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돕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
움직이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인데요,
의류매장 정리원, 온라인 패커, 편의점 스태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게요.

미영이는 의류매장 정리원입니다

의류매장은 옷을 입어보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언니에게 옷을 선물하기 위해 의류매장을 찾았습니다.

티셔츠, 바지, 치마, 점퍼 등 정말 옷들이 많네요!

어떤 옷이 언니에게 잘 어울릴까요?

고민하다 직원에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옷을 정리하던 미영이가 다가와

상냥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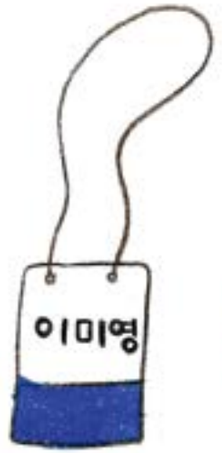
상냥한 말씨를 들으니,

분명 언니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잘 골라줄 것 같습니다.

미영이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정리하고 가격표와 보안태그 붙이는 일을 합니다.



손님에게 늘 상냥한 미영이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정리하고,
보안태그와 가격표 붙이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전 미영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름표를 목에 걸고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 생기는 먼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선
마스크도 꼭 써야 합니다.



이름표 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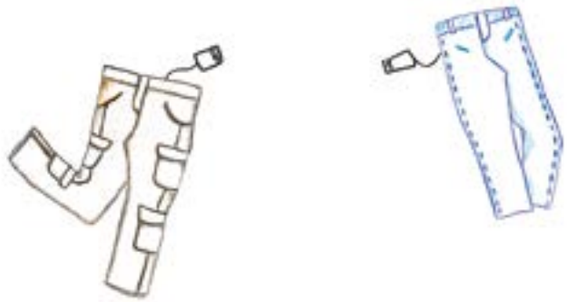
손씻기



마스크쓰기

일하기 전 준비하세요





손님들이 드문 오전 시간, 미영이는 창고에서
옷에 가격표 붙이는 일을 합니다.
손님들이 옷값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보안태그도 붙여줍니다.





가격표와 보안태그를 붙인 옷들은

매장 진열대에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옷걸이에 적힌 치수와 옷의 치수가 잘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원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미영이가 잘 정리해둔 덕분에

손님이 원하는 예쁜 원피스를 찾았습니다.

"원피스를 입어볼 수 있나요?"

"네. 저쪽으로 가서 입어보세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손님이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거울 앞에서 웃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미영이도 뿌듯하게

웃음짓습니다.



알아두세요

의류매장 정리원 이래서 좋아요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의류매장에는 계속 음악이 흘러 즐겁기도 합니다. 새로운 옷이 계속 의류매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행하는 패션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옷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 움직이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팔을 뻗어 옷을 걸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키가 보통 이상이라면 일하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정훈이는
대형마트
온라인 패커입니다



대형마트는 여러 상품들이 있어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도
물건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벌써 도착했네요.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주문하는 것을 온라인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들은

어떻게 우리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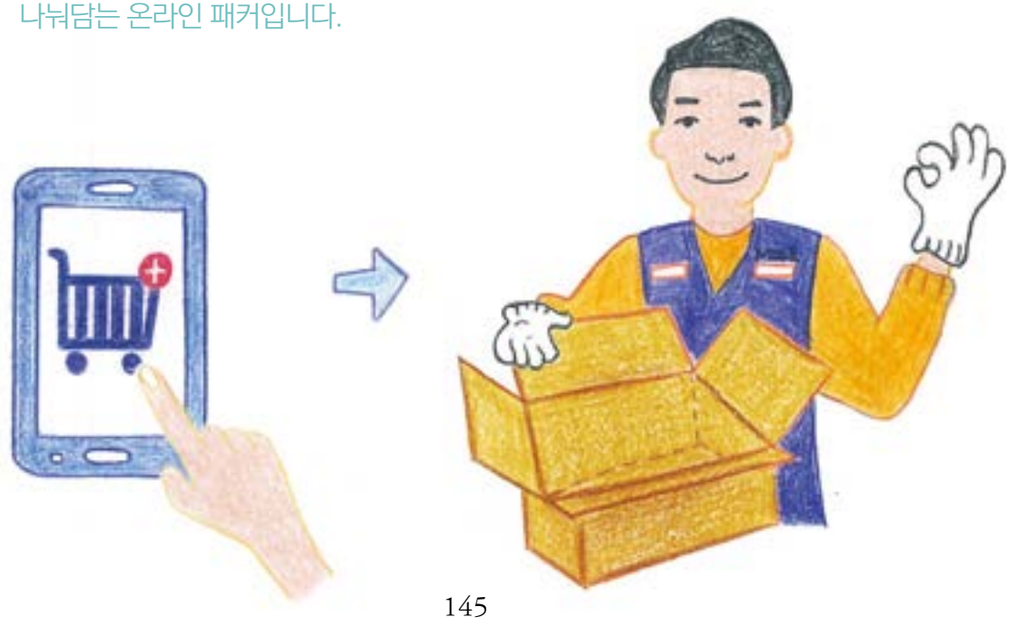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온라인 패커(Online Packer)'로 일하는

정훈이 덕분입니다. 온라인 패커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주문한 상품이 안전하게 집으로 배달되도록,

상품을 포장하고 박스에 정확히 나눠담는 사람을 말해요.

정훈이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주문한
상품이 안전하게 집으로 배달되도록,
상품을 포장하고 박스에 정확히
나눠담는 온라인 패커입니다.





단말기

"안녕하세요?"

온라인 패커로 일하는 정훈이는

매일 아침 씩씩하게 인사한 뒤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장갑을 낀 뒤,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삐~"

단말기로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주문한 사람의

이름, 주문한 날짜, 주문한 상품이 표시되어서

정확히 상품을 나눌 수 있답니다.

이제, 고객이 주문한 상품들을 찾아야겠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마트 매장에서 상품들을 찾는 사이,

정훈이는 상품을 담을 박스를 포장대에 올려놓고,

고객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박스에 붙입니다.

"정훈 씨! 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줘요."

정훈이는 동료들이 매장에서 찾아온 상품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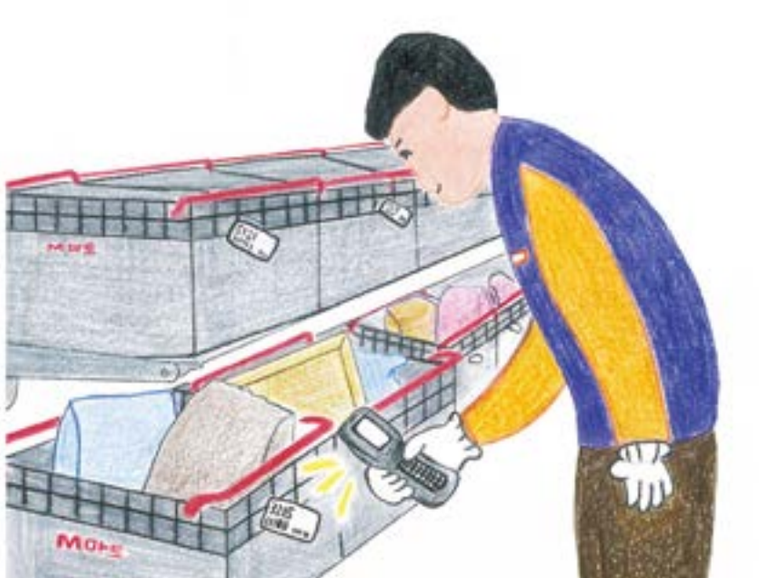
주문한 고객의 박스에 나눠서 담습니다.

"삐리릭~삐~"

"어? 단말기 소리가 이상하네?"

박스에 붙어있는 상품표시 스티커가

상품 바코드와 다를 때 나는 소리입니다.





정훈이가 상품을 다른 박스에 담고,

붙어있는 상품표시 스티커를 단말기로 찍어봅니다.

"삐~"

단말기 소리가 '삐'하고 울리는 걸 보니,

이제야 제대로 상품을 담았나보네요.

"휴… 다행이다."

쌀처럼 무거운 상품은 한 개씩 조심히 담습니다.

깨지기 쉬운 상품은 뽁뽁이로 한 번 더 포장한 뒤,

박스에 담아야 합니다.

드디어 상품들이 박스에 모두 정확히 담겼습니다.

정훈이가 상품들을 박스에 정확히 나눠 담으면

배달을 맡은 아저씨들이 박스를 차에 옮겨 실은 후,

고객의 집으로 배달을 갑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안전하게 집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게 온라인 패커, 정훈 씨 덕분이었네요.



알아두세요

온라인 패커 이래서 좋아요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단말기를 보고 고객 박스를 찾아야 되므로 한글과 알파벳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자 배열 순서를 안다면 나머지는 단말기 내용을 잘 보고 상품을 박스에 담는 일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스태프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열고
다양한 즉석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 단골손님이냐고요?

아니요. 준호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스태프입니다.

준호가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품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팝니다.

삼각 김밥, 도시락, 우유, 과자, 휴지 등

편의점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네요.



준호는 편의점에서
제품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을
합니다.

준호는 출근하자마자 작업복(조끼)으로 갈아입습니다.
조끼에는 편의점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서
손님들은 준호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스태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준호가 일을 시작하기 전 장갑을 낍니다.
장갑은 준호가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
손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화도 꼭 신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요?





점장님이 “새 제품이 도착했어요”라고 알려줍니다.
준호는 서둘러 제품이 도착한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수레에 제품을 차곡차곡 싣습니다.
준호가 제품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수레를 밀고 있네요.



편의점 입구까지 수레를 옮긴 준호가

제품들을 진열대에 보기 좋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감자칩, 저기에는 초코칩”

과자 봉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 같은 제품끼리 진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품을 진열할 때에는 유통기한이 빠른 것이

맨 앞에 진열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우 추워라.”

이번에는 준호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냉장고는 차가운 음료를 보관하는 진열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자에서 새 제품을 꺼내서 진열대에 차례대로 넣습니다.

손님이 와서 준호가 정리한 음료수 하나를 가져가네요.

“수고하세요.”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받으니,

준호는 무척 뿌듯합니다.



알아두세요

편의점 스태프 이래서 좋아요

편의점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출퇴근이 쉽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실내에서 일할 수 있고, 새로 나온 제품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정리정돈을 잘 하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날짜 개념을 잘 알고, 숫자의 크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박스를 옮기고 수레를 밀 수 있는 튼튼한 체력도 필수입니다.

농업



도시농부

+



화초재배원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곡식, 과일, 화초 등을 기르고 거두는 일인데요,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랍니다.
도시농부, 화초재배원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게요.

진헌이는 식물공장에서 일하는 도시농부입니다

식물공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키우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시골에 사는 농부들이 정성껏 가꾸겠지만,

땅이 아닌 곳에서 자라는 상추와 깻잎도 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밭 대신 식물공장에서 채소를 키우는

도시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진헌이는 식물공장에서 일하는 도시농부입니다.

시골에서 채소를 키우려면 흙과 햇빛이 필요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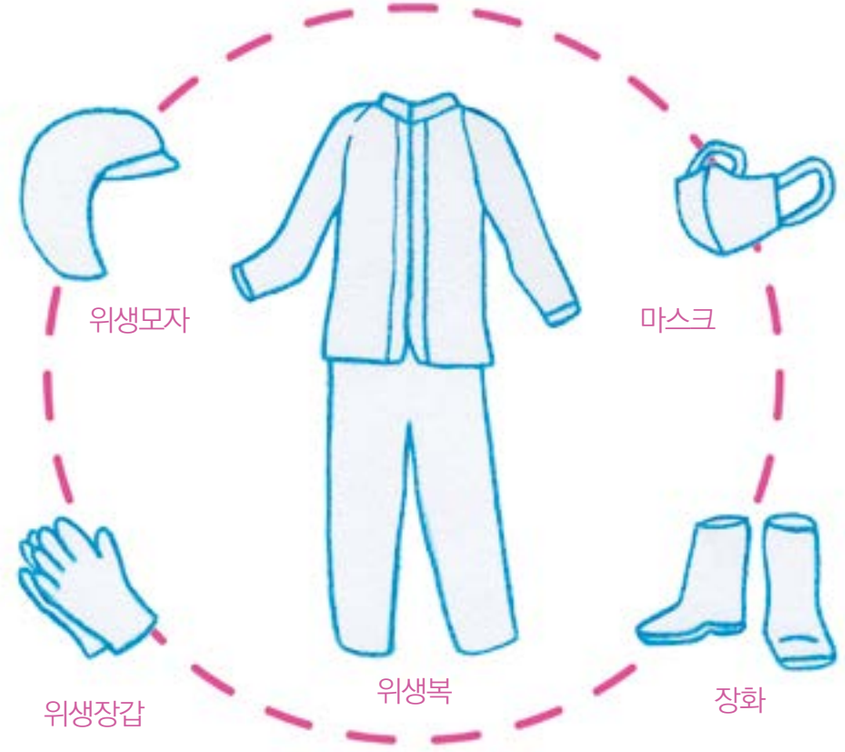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비료가 담긴 물과 인공빛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먹는 잎채소를 키울 수 있답니다.

진헌이는 식물공장에서
잎채소를 키우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전,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진헌이는
머리에 위생 모자를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합니다.
장화도 신고 손에는 위생장갑을 낍니다.
이제 일할 준비를 모두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센 바람이 부는 공간에서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야 준비가 끝납니다.





진헌이를 따라 채소를 키우는 곳에 들어오니
천장 높이까지 겹겹이 쌓여 있는 채소들이 보입니다.
진헌이가 잘 자란 채소를 조심해서 옮깁니다.
높은 곳에서 키운 채소를 옮길 때는
꼭 두 사람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동료와 사이좋게 일하는 진헌이의 얼굴이 즐거워 보입니다.



조심조심 채소를 옮긴 진헌이가 자리를 옮겨
채소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가위를 사용해서 채소의 뿌리를 깔끔하게 자릅니다.
그러더니 채소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시들어 보기 싫은 잎이 보이면 떼어냅니다.

진헌이가 저울 앞으로 다시 한 번 자리를 옮겨 포장을 합니다.
저울에 채소를 올리고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봅니다.
90g이네요. 80g이 될 때까지 채소를 조금씩 덜어냅니다.
진헌이가 만족한 듯, 채소를 조심스럽게 잡아
포장 비닐에 쏘옥 넣었습니다. 포장 끝!
말끔하게 포장된 채소를 보니,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알아두세요

도시농부 이래서 좋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자연을 찾아가지만 도시농부는 1년 내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므로,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일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도시에 살면서 식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채소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위생복과 마스크 같은 위생복장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자주 걸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람된 일입니다.

하율이는
꽃 농장에서 일하는
화초재배원입니다

꽃 농장은
꽃을 키우는
곳입니다.



오늘은 사촌동생의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졸업을 축하하고 싶어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안개꽃을 샀습니다.

이 꽃을 받으면 사촌동생도 분명 좋아하겠죠?

안개꽃은 꽃 농장에서 키웁니다.

꽃 농장은 온실이라서 늘 따뜻하죠.

하율이가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개꽃 말고도, 거베라와 금어초 그리고 장미꽃을 키운답니다.

하율이는 농장에서
꽃을 키우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꽃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 하율이는 여러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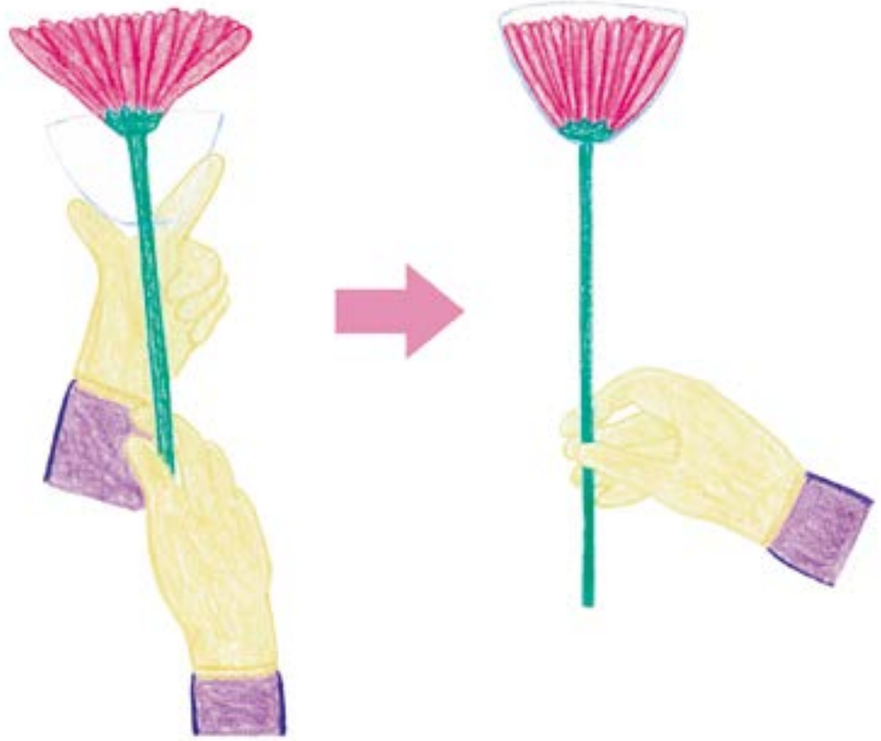
꽃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하거든요.

중요한 건 어린 꽃에는 농약을 뿌리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율이는 늘 목장갑을 끼고 손으로 잡초를 뽑아줍니다.





하율이는 조심스레 키운 꽃을 예쁘게 포장하는 일도 합니다.

오늘은 거베라 꽃을 포장하는 날입니다.

거베라 꽃의 크기에 맞는 투명한 플라스틱 고깔을

조심스럽게 끼우면, 보세요!

꽃송이를 훨씬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답니다!



투명한 고깔을 끼운 다음에는

구부러진 줄기를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줄기를 반듯하게 하려면 줄기 옆에 철사를 반듯하게 댄 후,

꽃받침에서 줄기방향으로 초록색 테이프를 잘 감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포장된 꽃들은 어디에 쓰일까요?

생일파티나 프로포즈, 입학식이나 졸업식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사용되겠죠.

꽃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알아두세요

화초재배원 이래서 좋아요

화원에서 일하면 새싹이 꽃으로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비료를 옮기는 일처럼 힘을 써야 하는 일도 가끔 있지만, 꽃 포장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플 걱정은 없답니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직업이에요!

꽃 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정말 마음에 들겁니다. 새싹과 잡초를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꽃이 자라는 모습이 신기하더라도 다 자랄 때까지 잘라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꽃을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직업을 맞춰보세요!



종이상자를 접고
운반하며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꽃 농장에서 꽃을
키우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식물공장에서
잎채소를 키우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옷에 가격표와
보안태그를 붙이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박스에 담는
일을 합니다.



도시농부



화초재배원



**종이상자
제조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온라인 패커



**의류매장
정리원**



편의점에서 제품을
나르고 진열하는 일을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음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빵집에서 빵과 과자
만들기를 돕습니다.



호텔 손님들이 깨끗한
리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복사,
서류정리, 우편물 정리
등의 일을 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리스타



편의점 스태프



호텔 세탁보조원



데이터 매니저



사무보조원



제과제빵 보조원



구청에서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수리하거나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실의 책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유모차를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자동차에 남아 있는 물기를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세탁공장에서 작업복, 이불, 수건 등을 세탁하는 일을 합니다.



공공기관 청소원



세차원



세탁원



휠체어 관리원



놀이공원 캐스트



사서보조원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팁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기계가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있는 집열판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차를 추천하고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람이 빠졌거나 망가진 자전거 바퀴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자전거 정비사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음성 전달사



티마스터



삽화디자이너



진단검사의학 보조원



우리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24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상담, 직업평가를 받은 다음에는 진로계획을 세웠고요.

회사에 견학을 가고, 필요하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꿈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실은 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빵빵!



고용개발 2019-02

빵빵! 꿈을 실은 job 버스

책 펴낸 날짜	(초판 1쇄 발행) 2017년 11월 30일
	(2쇄 발행) 2018년 11월 26일
	(3쇄 발행) 2019년 11월 22일
책 펴낸 곳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책 펴낸 곳 연락처	전화 (031) 728-7000 / 팩스 (031) 728-7199 / 전자우편 wona@kead.or.kr
홈페이지	(공단) http://www.kead.or.kr (고용개발원) http://edi.kead.or.kr
ISBN	978-89-5813-298-1 (93330)
책 엮은 곳	북톡톡 (**기획** 이선주 **일러스트** 진주보라 **디자인** 정두리)